

# 잠재성장률 반토막... 빈곤인구 2배 늘었다

## IMF 15년, 활력 잃은 한국 경제

### 취업자 증가세 둔화·실질성장률 3%대 밑으로 부익부 빈익빈 극심...외환 보유액은 16배 늘어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국제금융을 신청한 게 오는 21일로 15년째를 맞는다. 이 때문에 IMF에 손을 벌린 1997년 11월 21일은 'IMF 외환위기'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내로라하는 재벌 그룹이 줄줄이 쓰러지고 수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나왔던 외환위기 이래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반 토막 났다. 분배 구조도 날로 나빠졌다. 20일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6.1%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3.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이다. 한 번 떨어

어진다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한은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1990년대 6.1%이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 이후 4%대로 주저앉고, 2010년 이후 3%대로 더 내려갔다고 추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평균소득'은 늘었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분배구조 악화는 외환위기 이후 되레 심해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시 2

년(2.3%), 2009년(0.3%) 등 3%를 밑도는 일이 잦아졌다. 올해 성장률도 2.4%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성장률 역시 3%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971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3% 미만 성장률을 기록한 때는 '석유파동'이 덮친 1980년(-1.9%)이 유일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어 'V'자 반등했다. 그 덕에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 2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평균소득'은 늘었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분배구조 악화는 외환위기 이후 되레 심해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시 2

인구 시장소득 기준)'는 1997년 0.264에서 지난해 0.313으로 상승했다. 전체 인구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 인구의 비중도 8.7%에서 15.0%로 커졌다.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외환시장의 체질은 비교적 개선됐다. 1997년 말 204억달러로 사실상 바닥났던 외화보유액은 지난 10월 말 3235억달러로 16배 늘었다. 1997년 12월 하루에 달러당 130~140원씩 오르내리던 환율변동폭은 지난해 3.2원으로 안정됐다.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14.6%에서 33.8%로 커지고 채권 비중도 7%까지 높아져 자금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 체크카드 성장률 신용카드 6배

## 올 이용 100조원 달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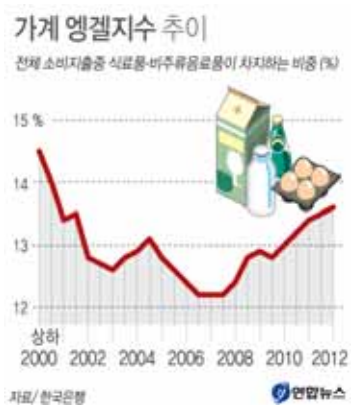
체크카드 고객이 급격히 늘어나 연말에는 이용액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 등 여파로 신용카드 사용은 급감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체크카드 이용액은 39조59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조4621억원)보다 21.98% 늘어났다.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은 올 상반기 283조29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273조9083억원) 3.42% 성장하는데 그쳤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대비 6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체크카드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분기마다 1조원 정도 이용액이 늘었다. 지난해 4분기 18조4950억원, 올해 1분기 19조584억원, 2분기 20조5380억원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시장은 약화일로에 있다. 올 1분기 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5%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전체 카드 시장에서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올 상반기에 14.52%로 전년 동기 대비 1.67% 포인트 증가했다. 체크카드의 급성장은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한 금융 당국의 직불·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은행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카드시장 공략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시민이 본인 계좌의 돈만 이용할 수 있어 빚을 늘리지 않는 체크카드를 선호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체크카드 시장은 KB국민카드와 NH농협이 휩쓸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올 상반기에 체크카드 이용액 8조2874억원으로 NH농협(7조7807억원)을 제치고 확고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식료품 부담 11년만에 최고

## 엔겔지수 13.6%

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지수'가 올해 상반기 11년여 만에 최고로 나타났다. 엔겔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가계의 생활형편이 악화하는 것을 뜻한다. 후진국에 가까울수록 이 지수가 커진다.



20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로는 올해 상반기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계절조정 기준)이 32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7% 늘었다. 같은 기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은 6.3% 증가한 44조원이다. 상반기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엔겔지수는 13.6%다. 2000년 하반기 14.0% 이후 가장 높은 값이다. 1970~1980년대 가계의 엔겔지수는 30~40%를 넘나들었다. 생활형편이 나아진 199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20% 아래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2008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6개월에 걸쳐 연이어 치솟았다. 이는 식료품 물가의 가파른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가계의 명목 식료품 지출은 2008년 상반기에 견줘 33.3% 확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 등 가격

변동 요인을 뺀 '실질' 식료품 지출은 겨우 5.7% 늘었는데 그쳤다. 식료품을 제외한 가계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류·담배 지출이 명목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분기 2.13%로 통계치가 존재하는 1970년 이래 최저다. 의류·신발 지출(5.1%)도 과거(5.5%)보다 낮아졌다. 금융위기 당시 7%대 후반(7.7%)·2008년4분기)을 기록한 가계의 교육비 지출 역시 올해 2분기 6.6%로 내려앉았다. 음식·숙박 지출(8.3%)은 2000년대 초반 수준을 이어갔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원은 "가계 소득이 회복하고 있음에도 기초식품 등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줄고 있다. 이는 살기 팍팍해진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이 20일 오전 창립44주년을 기념하여 'KJB금융박물관' 개관식을 갖고 테이퍼 컷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재 노조위원장, 강희복 사외이사, 박용 동우회 회장, 강락원 7대회장, 박영수 6대회장, 손성남 창립임원, 송기진 광주은행장, 엄종대 8대 회장, 정태석 9대회장,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 강선기 비상임이사.

# 44돌 광주은행 '100대 은행' 도약 다짐

KJB 광주은행이 20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기진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고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4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수 전 은행장(6대), 강락원(7대), 엄종대(8대), 정태석(9대) 은행장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장단, 광주은행 선배 임원, 최우수 고객대표 등이 참석해 창립 44주년을 축하했다. 송기진 행장은 기념사에서 "1968년 창립된 광주은행이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지역민들과 고객

님들의 한없는 사랑과 애호, 격려 덕분이다"며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 행장은 이와함께 광주은행이 글로벌 100대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관계금융강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스피드 경영 ▲소매영업 강화와 비용절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생경영 실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능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광주은행은 기념식에 앞서 KJB 금융박물관 개관 기념 44년생 호랑이사나무 기념식수와 'KJB금융

박물관'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KJB금융박물관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돼 어린이와 청소년의 금융교육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불혹을 지나 44돌을 맞은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11월 20일 자본금 1억5000만원, 점포 1개, 직원 50명으로 출발, 현재 153개 지점망을 갖추고 1700여 임직원이 일하는 총자산 21조원 규모의 든든한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성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백화점 송년세일 돌입

## 23일~12월 9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오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제히 송년 정기 바겐세일에 돌입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간 정기바겐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 바겐세일에서 패션잡화, 생활, 여성·남성·아동·골프·스포츠 의류 등을 10~30% 할인해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올해 마지막 정기 바겐세일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7일간 펼친다. 이번 세일 기간동안 겨울 신상품 위주로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하며 특히 패딩, 코트, 장갑, 목도리 등 겨울 방한용품 물량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가전매장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앞두고 디지털 TV 특집전을 전개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이번 겨울 세일에 해외명품을 포함한 전체 상표의 80% 이상이 참여해 제품별 10~50%의 할인 행사를 벌인다. 현대백화점은 첫번째 주 '아웃도어 겨울 특별전', 둘째 주 '아디다스 파워스페셜 행사', 30일부터 '유명 골프 웨어 종합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구두 핸드백 대전' 등을 진행한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 지역 특성화고 "경제야 놀자"

## 한국은행 경제캠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특성화고 학생 초청 경제캠프'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유도하고 진로선택, 이미지메이킹 등 졸업 후 사회 진출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1차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19~20일에, 2차로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오는 26~27일에 각각 경제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은행이 하는 일, 청소년의 신용관리와 합리적인 금융생활, 직업세계의 변화와 나의 진로, 경제 골든벨, 이미지 메이킹, 화폐 전시실 관람, 한국은행 업무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02-2276-0597~9, 강남: 02-3477-5110, 동대문: 02-733-0220, 송파: 02-419-3388, 서초: 02-538-1838, 강서: 02-322-2288, 부평: 02-517-5110, 수원: 031-246-5110, 고양: 031-821-6655, 안양: 031-469-0110, 평택: 031-658-5110, 용인: 031-336-1090, 오산: 031-378-4183, 부천: 032-268-2283, 남양주: 070-829-9003, 부산: 051-819-8800, 서면: 051-819-8800, 남포동: 051-266-7200, 울산: 052-268-2283, 대구: 053-297-6000, 광주: 063-746-9870, 대전: 053-425-4440, 세종: 054-225-5110, 제주: 064-659-2246, 강원: 033-252-5728, 충북: 043-446-0198, 충남: 041-553-2668, 전북: 063-252-2025, 전남: 061-252-2025, 경북: 054-222-3388, 경남: 055-252-3388, 충청: 042-225-3388, 강원: 033-252-3388, 제주: 064-659-224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권도형광학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25-5110

광주 박은광학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651-4477

순천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